

도채비는 잘 받들어 섬겨 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리고 섬기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섬겨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기도 한다.

도채비는 죽은 도채비와 산도채비로 나누어 불리는데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한다. 죽은 도채비는 불빛으로만 번쩍번쩍하고, 산도채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모습이긴 하나 이빨이 앙상해서 사람과 다르다.

산도채비를 잘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섬기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는 주인이 죽으면 그집 부인과 동침을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한다.

옛날 한경면에 산도채비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산도채비를 오랫동안 잘 모신 결과 큰 부자가 되었다. 산도채비는 주인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은 틀림없이 해왔다. 돈이라도 지금 내가 얼마 쓰고 싶다고 하면 금새 구해올 정도로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사람은 산도채비로 해서 큰 부자가 되었으나, 이젠 산도채비를 내쫓아야 할텐데 방도가 없었다. 도채비를 꾀로 해서 내쫓아야 할텐데 하고 하루는 산도채비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제주 성안에 있는 관덕정 앞마당을 뜯어내어 들러 왔으면 좋겠네.”

“주인님, 염려하지 마십서.”

산도채비는 주인과 약속을 한 후 쇠창 네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안 관덕정으로 들어갔다. 관덕정 마당에 이르러 동서남북 사방에 쇠창을 깊이 찌른 후 땅을 뜯어 내려고 악을 썼다. 마당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더욱 쇠창을 깊이 찔렀으나 마당을 뜯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산도채비는 주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는 때를 봐서 달아날 궁리를 했다.

아, 주인의 가장 큰 부탁인데, 그걸 못했으니 그냥 돌아간다면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섬김을 받지도 못할 터이니, 모르겠다, 달아나 버리자. 산도채비는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돌아가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은 어려움 없이 산도채비를 내쫓을 수 있었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76) 제보.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p.258.